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한 실태조사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는 2002년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국회, 정부 1·2청사, 16개 광역 시·도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조사를 실시한 바, 공공기관의 사무실이나 회의장에서 여전히 1회용컵이 사용(조사대상 37%)되고 있고, 또한 사무실이나 자판기 주변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서는 전국 6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실내 또는 회의시 1회용컵 사용안하기, 자판기에 대한 다회용컵 사용, 사무실 및 자판기 주변에 분리수거함 설치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협조요청을 진행했다.

자판기를 통한 1회용기 배출에 대한 수거 및 재활용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이번 산업정보에서는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했다.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쓰협 : 金在玉 집행위원장)는 2002년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정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온 국민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홍보 및 실천지침을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시민 생활 속에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조차 종종 공식행사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기관 내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지 않는 등 허점을 보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수

거 현황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보완되고 쓰레기 감량운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1. 조사개요

- 조사일시 : 2002년 9월 16일 ~ 10월 4일
- 조사지역 : 16개 광역 시·도청, 국회, 정부 1·2청사
- 조사방법 : 현장방문, 면접 등
- 조사내용 :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시 1회용품 사용여부
 - 1회용 컵 사용 자판기 설치 및 사용현황, 자판기주변 분리수거함 설치여부

- 사무실에서의 1회용품 사용실태, 사용 후 분리수거 여부 등
- 사무실, 민원실 및 복도의 분리수거함 설치현황

사무실 한쪽에 1회용컵을 쌓아놓고 있어서 1회용컵을 사용하기가 아주 쉬운 상황이었다. 1회용컵을 사용하는 곳에서의 분리수거 여부는 72%가 분리를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결과

1) 층별 자판기 설치현황 - 최대 1.5대, 최소 0.34대

층별 평균 0.78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층별로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이 인천시청으로 1.5대, 다음으로 경남도청이 1.4대로 나타났고 층별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청이 0.34대, 경기도청이 0.4대로 나타났다.

2) 자판기로 인한 1회용컵 사용량 - 최대 2개, 최소 0.0개

평균 하루에 1인당 0.6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경남도청이 1인당 하루에 2개, 부산시청이 1.5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사용량이 적은 곳은 강원도청으로 0.03개로 나타났고 과천시청, 대전시청, 대구시청, 경기도청이 0.2개로 그 다음으로 적었다.

3) 1회용컵 자판기 주변 분리수거대 설치여부 - 설치율 63%로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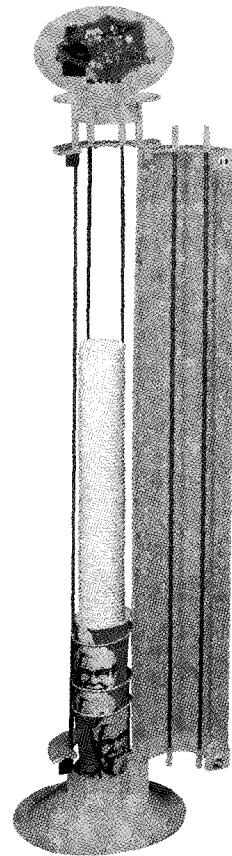
총 19개 기관 중 12곳(63%)이 분리수거대가 있고, 7곳(37%)이 분리수거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분리수거대의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사무실내에서의 1회용컵 사용 여부 - 사용하는 곳 22%, 이 중 72% 분리수거 안함

총 80곳의 사무실을 조사한 결과 사무실에서 본인이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경우는 22%로 나타났고, 손님접대시 사용하는 경우는 26%로 나타났다. 사무실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는 사무실의 경우 아예

5) 캔 등 자판기 주변 분리수거함 설치여부 58%설치, 일반쓰레기함 없어 쓰레기 섞이기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58%, 그렇지 않은 경우가 42%로 나타났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분리수거함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거나 일반쓰레기함이 함께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쓰레기가 섞여 있는 곳



이 많았다.

6) 민원실 분리수거함 설치여부 설치율 58%, 이 중 36%는 직원용

시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민원실의 분리수거함 설치 여부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58%로 나타났는데 그 중 36% 정도는 직원용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워 민원인들을 위한 분리수거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7) 사무실 및 복도의 분리수거함 설치여부 - 85% 설치, 모범적인 곳도 많아

총 80개의 사무실 중 69곳(86%)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19곳은 이면지나 종이만 분리하고 있어서 분리수거함을 제대로 설치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14%로 나타났다.

분리수거함이 잘 설치되어 있는 곳을 살펴보면 우선 대구시청은 모든 사무실이 일괄적으로 캔/종이/병의 수거함이 있었고 정부 1청사의 경우는 모든 사무실 복도에 통일된 형태로 종이/신문지/병캔/일반쓰레기로 나뉜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다. 서울시청 본청의 민원실에는 재활용/재사용/매립용으로 수거함이 나뉘어져 수거함 측면에 그 항목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었으며 전북도청은 분리수거함 자체는 사무실마다 크게 차이가 있었으나 프린트기의 커트리지함이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재생커트리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남도청의 농산정책과는 종이/우유팩/패트/캔병/스티로폼/요구르트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인천의 물관리과는 건전지와 음식물 분리함까지 있었고, 서울시청별관의 환경기획과는 병캔/건전지/신문지/일반종이로 나누어져 있었다.

8) 회의시 1회용품 사용여부 - 37%가 1회용품 사용

전체 38회의 회의 모니터 결과 14곳(37%)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었고 캔 및 병음료를 사용하는 곳은 13곳(34%),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곳은 7곳(18.5%), 회의시 음료가 없는 곳이 4곳(10.5%)으로 나타났다.

3. 문제점 및 제언

▶자판기 대수 많으면 사용량도 많아, 다회용컵 자판기 설치 확대 필요

자판기 대수 및 자판기 사용량이 그다지 높은 비율은 아니나 자판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일수록 그만큼 1회용컵 사용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수가 적으면 컵사용량도 아주 적은 것으로 보였다. 특히 다회용기를 이용한 자판기는 과천청사의 환경부 통로에만 있었는데 이 곳에는 자판기 옆에 다회용컵을 두고 이 컵을 직접 넣어 음료를 마시는 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일반 자판기에 조금만 시스템을 달리하면 쉽게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식으로 다른 공공기관에도 자판기를 설치하면 1회용컵의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회용컵 분리수거 및 재활용체계 만들어야

자판기 주변이나 사무실내에 1회용컵을 따로 분리수거하는 컵 수거대가 없는 곳이 많으므로 수거대를 시급히 마련하고 또한 분리수거후 재활용 가능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 자제 분위기 헤칠 우려

사무실에서의 1회용컵 사용은 본인이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경우(22%)나 손님접대시 사용하는 경우(26%)도 그리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 수치는 자판기를 사용할 때 외의 사무실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

에 사무실에서 자기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1회용품 사용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 판단된다.

행사나 회의시의 1회용컵 사용율도 그리 높은 비율은 아니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도 하며 혹은 국회의 경우는 방송 등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기도 하는 회의도 있는 상황에서 1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시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한 정책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1회용컵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무실의 컵 닦는 일을 대부분 여직원들만 담당하고 있는데 때문에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여직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시대가 변한 만큼 자기컵은 자신이 스스로 닦거나 당번제로 닦는 등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분리수거함 설치율 높으나 한 기관 내 수거항목 달라 통일성있고, 효율적인 수거함 마련 필요

캔 등 음료수 자판기 주변, 민원실, 사무실 및 복도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율은 일반 사무실보다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만 분리수거함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급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하더라도 한 기관내에도 함의 형태나 그 성상 등 차이가 굉장히 크므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좀더 체계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고 분리수거된 재활용품들이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리수거함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거나 성상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종류대로 분리함을 설치하지 않은 곳, 분리수거함만 있고 일반쓰레기함이 함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쓰레기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함께 섞여서 버려지는 곳도 있어서 형식적인 설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율이 높이고 재활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리수거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년보다 크게 개선됨, 이후 민간에 적용 가능한 시범 사례 시도 필요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자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한 노력은 예년보다 많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일부 기관의 경우 시민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노력, 또한 일반 시민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이후 이러한 시도가 성과로 이어지면 일반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례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